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문 정 순[†]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먼저 1차 예비척도 문항은 심리사회적 성숙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근거로 개발된 여러 척도들을 검토하고 심리사회적 성숙성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총 195문항을 선정하였다.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예비문항 45개로 축소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학생 241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16문항을 확정하였고 3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3개 요인은 개인적 성숙성, 대인적 적합성, 사회적 개방성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척도의 타당화를 위하여 삶의 만족, 심미적 감수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들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신경증 경향과 정서조절곤란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성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를 확인하였다. 네 번째, 독립적으로 표집한 대학생 272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3요인 구조의 안정성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척도가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성을 측정하는 신뢰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제한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요인분석, 개인적 성숙성, 대인적 적합성, 사회적 개방성

[†] 교신저자: 문정순,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Tel: 062-530-2610, jsforman@jnu.ac.kr

심리사회적 성숙성이란,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내용을 지닌 특정 심리적 차원으로 청소년기와 성인기 동안에 급속하고 중요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서의 발달적 변화이다(Steinberg, 1985; 여정희, 현미열, 이은주, 박은옥, 김정희 송효정, 2005에서 재인용). 개인의 높은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존중하며, 이해와 욕구가 충돌하게 되면 상호양보하거나 타협할 줄 알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타인을 해롭게 하지 않으며, 이웃 간의 화목과 조화를 도모하는 등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존재로서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여정희 외, 2005).

특히 대학생들은 청소년기 후기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발달단계로 신체적 성숙은 성인에 해당하지만, 심리사회적 측면에서는 아직 부모의 보호와 지원 아래, 사회인으로의 자립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정옥경, 2006). 이러한 미성숙한 상태들은 대학생활, 자존감, 도덕성, 성적체감, 성취동기, 대인관계, 전공선택 등에서 문제를 보이며, 일부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또 지나친 과소비와 가치관의 혼미, 도덕성 결여, 공동체 의식 부족, 물질지향, 자아정체성 부재 등의 미성숙한 요소를 보이고 있다(황명숙, 2001).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학생활에서 습득하는 지적, 기능적인 측면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이 기간 동안에 각자가 이루어가는 심리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왔다(여정희 외, 2005).

그 이유는 첫째 ‘대학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성인의 위치를 얻게 되고 성인의 책임감과 성숙성을 보여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견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윤진, 김도환, 1995).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란 대학생이 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으며, 대학 입학이후 변화의 정도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셋째, 각 개인이 지닌 심리적, 사회적 성숙의 정도는 단지 개인의 성격의 차이와 같이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로 생각하기도 한다(서봉연, 황상민, 1993). 그러나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적절히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서의 변화는 우리의 일생에서 중단 없는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정옥분, 2007). 특히 청소년 후기와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 시기에는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서의 발달적 변화가 무엇보다도 급속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서봉연, 황상민, 1993). 이 시기의 경험과 교육은 대학생들이 성숙한 인격체로 자신을 갈고 닦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 사회적으로 성숙한 대학생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려워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개인적 문제에도 위축되지 않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며, 제반 사태나 문제를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해가며 개인의 자아실현과 적응능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적절한 사적인 산출물을 내는 사고와 활동을 할 것이다(정은이, 2003).

따라서 심리사회적 성숙은 현재 대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해결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심리적 변인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의 대학교육의 지적 편향성의 병폐를 고려해 보더라도 새로운 인간 교육적 시각에서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화 과정과 심리적 성숙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서봉연, 황상민, 1993).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심리사회적 성숙성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심리검사의 구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론을 타당화 시키고 표준화된 자료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적절한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심리사회적 성숙은 개인의 발달정도와 특정 문화의 사람들이 주어진 시점에서 지녀야 하는 속성들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회-문화적 가치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서봉연, 황상민, 1993) 각 연령집단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숙성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측정하는 척도 역시 이에 걸맞게 다양성과 변화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제작된 심리사회적 성숙척도는 박정희(2002)와 서봉연과 황상민(1993), 그리고 노이경(2012)의 것이 유일하다. 박정희(2002)는 청소년용 심리사회적 성숙척도를 제작하였고, 서봉연과 황상민(1993)은 대학생과 2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제작하였으며, 노이경(2012)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성숙 척도를 제작하였다. 하지만 발달적 관점과 사회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박정희(2002), 노이경(2012), 서봉연, 황상민(1993)의 척도 중 그 어느 것도 적절하지 않다. 서봉연과 황상민(1993)은 그동안 변화된 사회의 가치나 규범에 따라 변화된 대학생들의 행동 규범이나 가치의 틀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보였다.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문항을 ‘사회적 관계’의 하위요소에서 부정적 방향으로의 성숙으로 보았다. 또한 “나는 상황에 따라 또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문항에서도 ‘적극적 사고’의 하위요소에서 부정적 방향으로의 성숙으로 보았다. 이는 독립주의 인간관을 가진 문화권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행동요소를 비취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상호의존적 인간관을 가진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적응적인 행동임이 밝혀졌다(Suh, 2002). 노이경(2012)은 성인용 심리사회적 성숙척도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발달적 관점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 “손해

나 고통이 따른다 해도 나는 공익을 위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직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보해야한다”, “나에게는 자신만의 목표가 아닌 사회를 위한 비전과 사명의식이 있다”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감’은 아직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친밀감단계로 나아가는 발달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적절하지 못한 문항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박정희(2002)는 청소년용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성을 측정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먼저 변화된 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따른 성숙한 심리사회적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 척도를 개발해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비록 인간에게는 내재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의 고유한 속성이 있지만(Sheldon & Kasser, 2001) 심리사회적 성숙성이란, 한 개체가 심리내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성숙해 가는 것으로(조윤경, 2003) 각 사회 문화 집단이 강조하는 가치 및 행동규범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성숙성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도 다르게 분류된다(서봉연, 황상민, 1993).

대표적 예로 동양의 사상체계라 할 수 있는 유학 사상에서는 인간의 삶을 자기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구도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상적 인간, 성숙한 인간형의 추구를 최고의 덕목이자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표는 인간의 심성에 대한 덕성우월론의 관점에서 비롯되는데, 도덕성에 대한 인식과 이의 실천이 유학적 삶의 모습이며, 이러한 삶의 이상적 표본을 군자(君子), 현인(賢人), 성인(聖人)으로 지칭하고 있고, 이상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한덕웅, 1994; 장세호, 2003; 조궁호, 2007b).

공자는 군자의 특징을 “자기를 닦음으로써 삼가는 일(修己以敬), 자기를 닦음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修己以安人), 그리고

자기를 닦음으로써 온 천하를 편안하게 해주는 일(修己以安百姓)의 세 가지로 보고 있다(조궁호 2007a). <맹자>에서는 성인의 모습이 인격적 완성을 이루어 깨끗함을 견지하는 성지청(聖之淸), 인간관계에서 화합을 도모하는 성지화(聖之和),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을 나타내는 성지임(聖之任)으로 제시하고 있다(萬章下 1; 노이경, 2012에서 재인용). 즉 성숙이란 도덕적 인격적 자기완성, 타인과의 조화, 사회에 대한 책임감 등을 갖춘 것이라는 의미이다(노이경, 2012).

서구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대표적인 성숙인격 모형은 Allport(1961)의 성숙한 성격(mature personality), Erikson(1959)의 건강한 성격(healthy personality), Rogers(1961)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Fully functioning person), Maslow(1970)의 자기실현적인 사람(Self-actualizer), Adler의 창조적 자기, Jung(1954)의 개별화된 존재(Being of individuation)등이 있다(노이경, 2012에서 재인용). 특히 Greenberg와 Sorensen(1974)은 성숙의 개념을 성장, 발달, 사회화의 최종산물 혹은 이상적인 심리적 결실로 보고 개인적 성숙성(혼자 적절히 기능하는 능력), 대인간 적합성(타인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 사회적 개방성(사회의 존속에 기여하는 능력)을 심리사회적 성숙성의 기본 범주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론에서 비롯된 성숙성의 개념 역시 동양의 유학사상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동서양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개념은 개인의 심리발달을 사회화 목표에 최대한으로 맞추기 위해 필요한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명세화하는 과정에서 구성된다. 즉 이 개념은 개인들에게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이 특정 사회 속에서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학적인 틀에서, 사회적 응집력에 기여하는 능력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서봉연, 황상민, 1993).

모든 사회에서 자급능력, 대인간 효율성, 사회적 응집력 차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수행이 성

숙한 개인들로부터 기대된다고 제안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사고와 가치판단, 사회행동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한규석, 1991), 각 사회문화적 가치에 따라 특정문화의 사람들이 주어진 시점과 발달수준에서 지나야 하는 속성들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성숙성이 다르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심리사회적 발달은 문화적 사회적 영향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성숙하며, 심리사회적 성숙성이란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인이 사회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에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이 특정사회 속에서 어떤 속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생은 만 19세 전후에 대학에 입학하여 여학생은 23세,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은 25세 전후에 졸업한다. 에릭슨의 발달단계이론으로 봤을 때 이들은 정체성과 친밀감 형성 단계에 해당된다. 비록 심리사회적 요소들의 특성들이 발달과정에서 사회적 경험에 따라 변화한다는 틀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심리사회적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면 Steinberg(1985)는 심리사회적 성숙성을 정체성, 자율성, 친밀감, 성적활동, 성취감으로(서봉연, 황상민, 1993에서 재인용)보았고, 서봉연과 황상민(1993)은 정서안정성, 사회인지 역량, 자아정체감, 적극적 사고, 사회적 관계, 윤리와 도덕성으로 보았다. 또한 발달적 관점에서 심리사회적 성숙성을 연구해온 Greenberg(1974)는 성숙의 일반적 차원들을 개인이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적절히 상호작용하는 능력, 자기 자신이 포함된 사회의 생존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특히 사회의 생존에 개입하는 능력이 개인의 적절한 발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발달이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처럼 심리사회적 성숙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 못지않게 최근 현대사회는 다양하

고 급속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심리사회적 성숙성을 모두 담아내기에 어려움이 엿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대인적, 사회적 개방성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성 및 특징을 더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3가지 측면에서의 성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성숙성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서수균, 정영숙, 안정신, 박민아, 2012; 여정희 등, 2005; 조운경, 2003; Berzonsky, & Kuk, 2005; Bingham, Shope, Zakrajsek, & Raghunathan, 2008; Monahan, Steinberg, Cauffman, & Mulvey, 2009; Waterman, 1972). 서수균 등(2012)은 성숙한 사람들은 친절, 개방성, 자기조절, 진정성, 용감, 높은 사회적 지능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성숙의 특성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에서는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고, 자기와 타인의 감정이나 동기를 인식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에 높은 가치를 두는 특성인 인간애 영역에서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인간애 다음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진실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활력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인 용기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용기다음으로 절제(자기조절, 겸손, 신중)와 정의(공정성, 팀워크, 리더십)도 성숙한 사람의 주요 특성으로 언급하였다.

여정희 등(2005)은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성이 우울감과는 부적상관을 자존감과는 정적상관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조운경(2003)은 심리사회적 성숙성이 높은 사람이 나 의식과 우리 의식이 높았으며, 우리에게 대한 회의가 낮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심리사회적 성숙성의 정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성숙성의 정도가 낮은 학생들보다 대학에서 지적 발달과 개인적 성장을 위해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높았으며, 자신의 성격부분에서는 정체감과 친밀감, 그리고 자율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Waterman, 1972). 또한 정체감 유형과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Berzonsky, & Kuk, 2005), 충동통제, 공격성 억압, 미래지향, 타인배려, 개인적 책임감 그리고 반사회적 성향 행동을 계속하는 동료와 그만두는 동료를 구분해 또래의 영향에 저항하는 능력에도 차이를 보여주었다(Monahan, Steinberg, Cauffman, & Mulvey, 2009). 또한 심리사회적 성숙성은 문제가 있는 운전행동과도 연결되어 있어 심리사회적 성숙성 수준이 높은 개인은 난폭한 운전이나 약물운전, 음주운전이 심리사회적 성숙성 수준이 낮은 개인보다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여주었다(Bingham, Shope, Zakrajsek, Raghunathan, 2008).

지금까지 살펴본 심리사회적 성숙성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성숙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척도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결과 및 심리사회적 성숙성의 특징을 보여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 심미적 감수성, 정서조절 곤란, 신경증 경향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안정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방 법

참가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를 개발하고, 그것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참가자 250명의 자료 중 9명의 결측치를 제외한 241명을 대상으로 문항 선정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J시 소재 대학에서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신문방송학을 전공

하는 19 ~ 29세의 대학생들이었다. 전체 평균 연령은 22세($SD = 2.15$)였고 이중 남자는 109명(45%), 여자는 132(55%)명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대상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대한 요인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 참여한 학생들과 독립적인 표집을 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J 시 소재 대학에서 심리학개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부생 28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결측치를 제외한 27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의 21세($SD = 1.80$)였고, 남자는 83명(30.5%), 여자는 189(69.5%)였다.

측정도구

심미적 감수성 척도 및 자율성 척도

노이경(2012)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심리사회적 성숙성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2문항으로 하위요인에는 자기실현 및 일에 대한 헌신, 긍정성과 평정심, 자율성, 사회적 책임감, 심미적 감수성, 존중과 배려, 가족애와 관계지속성의 7요인이고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심미적 감수성과 자율성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심미적 감수성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다방면에 걸쳐 많은 편이다.” “좋은 음악을 듣거나 글을 읽다가 온몸에 전율이 일거나 감동으로 눈물이 날 때가 있다.” 등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성 또한 “싫을 때는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한다.” 등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각각 .69와 .81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심미적 감수성은 .79 그리고 자율성은 .81로 나타났다.

신경증경향 척도

Eysenck와 Eysenck(1991)가 개발한 성격 검사지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를 이현수(1997)가 한국적 상황에 맞게 표준화 한 것으로 준거 관련 타당도 확인을 위해 사용되었다. 척도는 6개 요인(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내향성, 신경증 경향성, 허위성, 중독성, 범죄성)의 8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적 경향성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신경증 경향 척도 문항은 “나는 특별한 이유없이 비참한 생각이 든 적이 있다”, “나는 자주 싫증이 난다” 등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현수(1997)는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84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역시 .84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이 척도는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이 척도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 7점 리커트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는 임영진(2012)이 우리나라말로 번역한 한국판 SWLS 중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예,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내 인생의 여건의 아주 좋은 편이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를 의미하는 3문항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SWLS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이다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

이 척도는 정서조절곤란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총 36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피검사자들로 하여금 각 문항내용이 평소 자신에게 얼마나 해당되는지 그 정도를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조용래(2007)가 번역하고 타당화 하였다. 한국판 DERS는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정서에 대

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그리고 '목표지향 행동 수행의 어려움' 등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충동통제곤란과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의 2개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7문항(예, 나는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하기가 힘들다고 여긴다,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등)을 사용하였다. 조용래(2007)의 충동통제곤란과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89와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93과 .90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개인의 삶의 질을 심리적 안녕감이라고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검사도구이다. 국내에서는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자기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지배력, 자율성, 삶의 목적 및 개인적 성장의 6개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지배력(예, 내 가정과 생활방식을 만족스럽게 꾸려올 수 있다 등 6문항), 개인적 성장(예, 나 자신과 인생살이에 자극을 줄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6문항), 자아수용(예,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등 6문항), 삶의 목적(예, 나는 인생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등 6문항)의 요인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66 ~ .7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68 ~ .81로 나타났다.

절차

1단계: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 예비문항 선정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문항은 이론

가들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성숙성의 개념화를 포괄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들을 중심으로 문항을 수집하였다. 예를 들면 1차 예비척도 문항은 심리사회적 성숙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근거로 개발된 여러 척도들을 검토하고 문헌고찰을 통해 총 195문항을 선정하였다. 1차 예비문항들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심리학 석사과정 4명과 박사 과정 3명을 평정가들로 구성하여 평정을 받았다. 7명의 평정자들에게 각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사회적 성숙성 개념과 각 문항들을 제시하고, 각 문항이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개념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는지와 문항내용이 적절한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7명의 평정가들은 각 문항에 대해 6점 척도 '가장 그렇지 않다'에서 '가장 그렇다'까지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평균 4점 이상에 해당되는 문항을 정리하였다. 며칠 후 평정가들과 함께 이들 문항을 다시 살펴보고 평정가들간에 의견이 엇갈린 문항,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이나 해석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문항은 배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평정결과 45개의 문항들을 최종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2단계: 탐색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검증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 243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된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3단계: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 구조를 확인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에 참가한 학생들과 독립적인 연구 참가자를 표집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예비척도)

예비문항 선정 과정을 통해 선정된 45문항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예비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6: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분석방법

예비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자 SPSS Windows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와 사각회전(Promax)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KMO(Kaiser-Mayer-Olkin) 적합성 지수와 Bartlett 검증을 확인하였으며, 다변량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적합지수(Tucker-Lewis Index: TLI), 그리고 근사평균오차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적합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19.0을 사용하여 공인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공인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심미적 감수성, 자율성, 환경지배력,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삶의 목적과의 상관을 살펴 보았고,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척도와 신경증경향 척도 그리고 정서조절곤란 척도와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 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 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3 요인을 가정하였지만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최대우도 방식과 사각회전을 사용하였다(이순목, 2000).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상관 행렬을 분해할 때 충족되어야 하는 가정 중의 하나는 측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의 왜도, 첨도 등 문항별 분포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는 -1.181에서 .258사이 값을 첨도는 -.790에서 1.689의 사이 값을 보여주었다. 관찰변인의 단변인 또는 다변인 정규분포성의 가정 충족 여부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의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 정규분포성을 판단하기보다 왜도와 첨도가 절대값의 크기로 판단하기를 권장하고 있다(Curran, West, & Fincg, 1997; 문수백, 2009, p.381에서 재인용). 표준 왜도 지수의 절대값이 3.0보다 작고 표준첨도 지수의 절대값이 10보다 작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KMO적합성 지수는 .90이었고, Bartlett 검증 결과는 $p < .001$ 로 유의미 하였으므로 요인 분석에 적합한 행렬임이 판명되었다. 또한 고유치(eigen value) 1을 넘는 요인이 6개로 나타났으나 스크리 도표에서 고유값의 하락이 멈추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3개 요인을 가진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카이제곱 검증으로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 3요인 구조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한 다음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명확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 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 9개(나는 규율을 매우 잘 지키는 사람이다 등)와 패턴 행렬에서 2요인에 걸쳐있는 문항1개(예 두려운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움과 위협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용기있는 행동을

하는 편이다)를 제외하고 다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행렬에서 여러 개의 요인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문항들(내 자신의 소중함과 가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남성(혹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자신있게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면, 어려움과 실패가 예상되더라도 용기를 갖고 도전한다, 두려운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움과 위협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용기있는 행동을 하는 편이다, 나는 지난 한달 동안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등)은 제거하였다. 왜냐하면 여러 요인에 걸쳐 있는 문항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 순수하지 못한 요인산출로 인해 원래 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된 특성을 대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양병화, 2002). 이러한 절차를 거치자 최종 16문항이 산출되었다.

이들 16문항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한 결과 요인 1은 6문항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계획과 믿음이 있다’, ‘도전하고 있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등의 문항이 묶였다. 요인 1에 묶인 문항들은 주로 개인적인 목표, 노력, 자아 실현과 관련된 것이므로 요인 1을 ‘개인적 성숙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6문항으로 ‘대화시 우호적인 표현과 친근감 있고 정감어린 태도를 취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세심하게 남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인드가 강하다’와 같은 문항으로 묶였다. 요인 2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이므로 “대인간 적합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4문항으로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근거를 찾으려 한다’, ‘나는 항상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비교해본다’, ‘나는 항상 어떤 문제의 양면성을 살펴본다’, ‘복잡하게 얽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나는 내 견해와 다른 입장들도 공정하게 고려하려 냉철하게 잘 판단하는 편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에 묶인 문항들은 사회적 개방성으로 명명하였다. 최대우도법은 요인의 개

표 1. 요인 간 상관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1	-		
요인2	.34**	-	
요인3	.35**	.47**	-

수에 대해 카이제곱으로 통계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카이제곱 검증 결과는 $\chi^2 = 226.828$, $df = 101$, $p < .001$ 나타났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증은 표본 수에 매우 민감하여 좋은 요인 모형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RMSEA(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p76)과 TLI(이순목, 2010. p.50) 지수를 살펴보았다. RMSEA가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이고(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p77), TLI가 .90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이순목, 2010. p.52). 본 연구에서 RMSEA는 .72, TLI는 .903로 드러나 3요인 구조가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3요인 구조의 전체 설명력은 53.87%였으며, 각 요인별 설명변량은 요인1은 32.53%, 요인2는 12.38% 요인3은 8.96%였다. 척도의 전체 내적 일관성신뢰도는 .88이었고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요인1이 .88, 요인2가 .83, 요인3이 .83으로 나타났다(표 2). 요인 간 상관을 보면(표 1) 요인1은 요인2와 요인3과 각각 .34와 .35의 상관을 보였고, 요인2와 요인3의 상관은 .47로 나타났다. 요인별 문항 및 요인 부하량은 표 2와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각각 제시하였다.

타당도 검사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와 관련된다고 제안된 척도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표 4), 삶의 만족 척도($r = .28 \sim .53$), 심미적 감수성 척도($r = .18 \sim .31$)는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p < .01$) 정적상관을 보여주었다. 또한 심리

표 2. 심리사회적 성숙 척도 최종 문항의 요인 부하량과 문항 총점간 상관

하위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문항-총점간 상관	Cronbach α
개인적 적합성	19	.883			.547	.88
	20	.842			.589	
	18	.787			.621	
	21	.768			.565	
	22	.632			.413	
	44	.507			.461	
대인적 적합성	29		.740		.505	.83
	15		.718		.521	
	13		.715		.447	
	28		.669		.475	
	11		.598		.408	
	37		.569		.383	
사회적 적합성	3			.967	.677	.83
	4			.871	.677	
	2			.625	.441	
	6			.415	.364	
고유치		5.205	1.982	1.433		
설명분산		32.534%	12.384%	8.955%		
누적분산		32.534%	44.919%	53.874%		

적 안녕감 척도의 하위요소인 환경지배력($r = .32 \sim .58$), 개인적 성장($r = .33 \sim .60$), 자아수용($r = .31 \sim .57$), 삶의 목적($r = .30 \sim .75$)도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역시 유의한($p < .01$) 정적상관을 보여주었다. 자율성도 개인적 성숙성($r = .37, p < .01$)과 대인적 적합성($r = .14, p < .05$), 사회적 개방성($r = .32, p < .01$)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경증 경향 척도($r = -.19 \sim -.32$)와 정서조절 곤란 척도($r = -.13 \sim -.27$)도 유의한($p < .01$) 부적상관을 부여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개인적, 대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이상적인 심리사회적 성숙 정도를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구조모델이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표본과 독립적인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18.0을 사용하였으며 최대우도 추정치(maximum likelihood estimates)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모형의 설명력 및 간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MIN/DF,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CMIN/DF는 χ^2 값을 df 로 나눈 값으로 3.0 이하이면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만족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로 간주된다.

표 3. 심리사회적 성숙 척도 문항 내용과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명	문항내용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19. 도전하고 있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4.25	1.28
	20. 내 목표를 위해 세운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3.66	1.16
	18.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계획과 믿음이 있다	4.31	1.08
	21. 나는 더 나아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4.25	1.08
	22.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나에게 잘 맞는다고 느낀다	4.23	1.20
	44. 나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내가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갖고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편이다	4.26	.97
대인간	29. 대화시 우호적인 표현과 친근감 있고 정감어린 태도를 취한다	4.50	1.00
	15. 나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편이다	4.57	.87
	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4.49	.95
	28. 세심하게 남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인드가 강하다	4.29	1.01
	11.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즐긴다.	4.60	1.05
	37. 나는 좋은 성품과 건전한 매너를 가지고 있다	4.51	.88
사회적	3. 나는 항상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비교해 본다.	4.86	.92
	4. 나는 항상 어떤 문제의 양면성을 살펴본다.	4.48	1.06
	2.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근거를 찾으려 한다.	4.47	1.05
	6. 복잡하게 얽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나는 내 견해와 다른 입장들도 공정하게 고려하여 냉철하게 잘 판단 하는 편이다	4.29	.99

표 4.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인	전체	개인적 성숙성	대인적 적합성	사회적 개방성
삶의 만족도	.55**	.53**	.38**	.28**
심미적 감수성	.31**	.31**	.19**	.18**
자율성	.37**	.37**	.14*	.32**
환경 지배력	.58**	.58**	.32**	.39**
개인적 성장	.58**	.60**	.34**	.33**
자아수용	.59**	.57**	.42**	.31**
삶의 목적	.65**	.75**	.30**	.35**
신경증 경향	-.35**	-.32**	-.27*	-.11**
정서조절곤란	-.26**	-.13*	-.23*	-.26**

** $p < .01$, * $p < .05$

또한 TLI와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김계수, 2007, 홍세희, 2000). 총 272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3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293.683$ $df = 101(p < .001)$, CMIN/DF = 2.908, TLI = .852, CFI = .875, RMSEA = .84로 나타나 적합도 뿐만 아니라 간명성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수정지수를 사용하였다. 수정지수 사용은 신중하게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사용

해야 한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을 구성할 때 이론적으로 설정한 요인들과 관찰변인들 사이에만 공통요인이 존재하고 이외에는 공통요인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든 관찰변인들의 오차항간에 상관이 없는 모델을 설정하게 된다. 또한 관찰변인들은 설정된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들과 공통요인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같은 요인에 다른 관찰변인들의 상관이나 다른 요인들의 관찰변인들의 상관이 존

표 5.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 모형의 적합도 계수

Model	χ^2	df	CMIN/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심리사회적성숙성척도	212.447	94	2.260	.902	.923	.068(.056~.080)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와 t 검증치

측정구조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요인1	→	문항3	1	.712	
요인1	→	문항6	1.203	.725	10.614***
요인1	→	문항9	1.069	.726	10.631***
요인1	→	문항12	.911	.692	10.181***
요인1	→	문항14	.742	.498	7.355***
요인1	→	문항16	.876	.645	9.474***
요인2	→	문항2	1	.494	
요인2	→	문항5	1.420	.683	8.625***
요인2	→	문항8	1.604	.777	7.569***
요인2	→	문항11	1.802	.775	7.554***
요인2	→	문항13	1.433	.629	6.908***
요인3	→	문항15	1.349	.617	6.853***
요인3	→	문항1	1	.621	
요인3	→	문항4	1.093	.695	8.411***
요인3	→	문항7	1.277	.728	8.614***
요인3	→	문항10	1.115	.618	7.768***

주. 비표준화 계수는 1로 고정함. 문항번호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는 1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임. 요인 1은 개인적 성숙성, 요인 2는 대인간 적합성, 요인 3은 사회적 개방성임

*** $p < .001$.

재할 경우 모델 속에 설정된 요인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모델이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문수백, 2009, p532).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AMOS분석 결과에서 제시하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와 관찰변인과 요인들간의 상관을 볼 수 있는 구조행렬을 참고 하면서 수정을 가하였다. 그 결과(표 5) $\chi^2 = 212.447$, $df = 94$ ($p < .001$), $CMIN/DF = 2.260$, $TLI = .902$, $CFI = .923$ 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으며 $RMSEA = .068$ 로 좋은 간명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확인한 결과 거의 모든 표준 회귀계수가 .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모형의 개념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 참고).

논 의

심리사회적 성숙성이란,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내용을 지닌 특정 심리적 차원으로 청소년기와 성인기 동안에 급속하고 중요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서의 발달적 변화이다.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서의 발달적 변화가 무엇보다도 급속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의 경험과 교육은 대학생들이 성숙한 인격체로 자신을 갈고 닦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화 과정과 심리적 성숙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심리검사의 구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심리사회적 성숙성과 관련된 문헌 고찰과 함께 이론가들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성숙성 개념화를 포괄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들을 중심으로 문항 pool를 구성하였다. 그 결

과 총 195문항이 구성되었다. 개발된 예비 문항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서 문항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45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24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타당도 검증 및 신뢰도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독립적으로 표집한 27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3요인 구조를 가진 최종 16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지지되었다. 하위 요인별 문항들의 내용과 이론적으로 고찰된 내용들을 고려하였을 때 3개의 요인들은 ‘개인적 성숙성’, ‘대인적 적합성’, ‘사회적 개방성’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개인적 성숙성’요인은 개인적인 목표에 대한 계획과 믿음이 있으며 의지를 가지고 끊임 없이 노력하는 등의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인 ‘대인적 적합성’ 요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고 정감어린 태도를 취하고, 친절을 베풀고,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을 즐기는 측면등과 같은 주로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개방성’ 요인은 어떤 문제나 의견에 대한 다양성이나 양면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개방성은 이들의 자아정체성 지위 중 성취지위가 단지 13.4%임을 참고하였을 때(조애리, 김계현, 2011)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회적 개방성 문항들이 대학생들의 발달단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적합한 변인들임을 알 수 있었다. 아직 대다수의 대학생들이(86.6%) 정체감 혼미, 조기완료, 유예, 미분화단계에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에게 “일신의 출세보다 공익을 위해 살고 싶다”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책임감(노이경, 2012)과 같은 요인을 대학생들의 이상적인 발달 단계에 필요한 요인으로 포함시킨다면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너무 높은 사회적 요구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요인으로 구성된 대학생들의 심리 사회적 성숙성 척도는 Greenberg(1984)가 개인적 차원, 대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한 심리 사회적 성숙의 분류차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맹자>에서 강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도덕적 인격적 자기완성, 타인과의 조화,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도 유사한 분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독립적으로 표집한 표본으로 확인적요인분석(CFA)의 결과 역시 TLI, CFI, RMSEA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3요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심리 사회적 성숙성 척도는 삶의 만족, 심미적 감수성, 자율성,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감정조절곤란과 신경증 성향과는 유의하게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심리 사회적 성숙성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는 심리 사회적 성숙한 사람은 자기조절을 잘하며(서수균 등, 2012), 낮은 신경증 성향, 높은 심리적 안녕감, 심미적 감수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노이경(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이 심리 사회적 성숙성과 정적상관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자기수용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낮다는 조윤경(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자아정체성의 확립은 대학생 시기에 이루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으로(조애리, 김계현, 2011) 외부 환경적 맥락에서 오는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한다(coote & Levine, 2002; Schwartz, coote & Arnett, 2005). 즉 자아정체성이 확립된 대학생은 삶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성숙성과 삶의 목적과의 높은 상관관계($r=.75$)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학생들의 심리 사회적 성숙성 척도가 대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변인들로 구성되어있음을 입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심리 사회적 적응하고 성장하며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그 정도를 측정하는 심리 사회적 성숙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대학생들의 건강한 성격 특성이나 한 사회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하는데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중요한 측면이다. 특히 학생들의 심리 상태 및 환경을 고려한 대학생들의 심리 사회적 성숙성 척도는 대학생들이 당면한 환경에 적응하고 심리적 요소의 개발에 도움이 제공되어야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심리 사회적 성숙성이란 각 개인이 가지고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 개인이 형성하고 조직화하는 심리 특성들의 차원의 변화로,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성숙성은 성인의 그것과 구별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대학생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심리 사회적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혔는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학생들의 심리 사회적 성숙성 척도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대학생들에 대한 이해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과거에는 대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성인의 발달 수준을 가정하여,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성인의 발달의 측면을 기대하였었다(윤진, 김도환, 1995). 그러나 대학생들의 심리 사회적 성숙성은 성인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심리 사회적 성숙성이 높은 대학생들에서 요구되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특징으로는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비교 보는 것과 같은 사회적 개방성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된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가 대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준비를 하여 사회에 참여하도록 심리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정옥분, 2010, p428)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성숙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대학생을 표집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학년별,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성숙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차이점을 밝히지 못했다.

둘째, 척도 개발시 참가자들이 문항을 이해하는데 혼동을 줄 수 있는 ‘항상’과 같은 빈도부사를 자제해야함(탁진국, 2011. p85)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개방성에 빈도부사가 사용되었다.

셋째,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가 기존의 유사한 척도와 구별될 수 있는 척도임을 확인하는 변별타당도분석을 하지 않았다.

넷째, 본 연구는 지방 대학생들을 표집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의 경험이 심리사회적 성숙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다른(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밝히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들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노이경 (2012). 한국 성인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97-337.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문정순 (2007). 한국판 마음챙김 주의 자각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정희 (2002). 부모의 가정교육방향 및 양육행동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봉연, 황상민 (1993). 서울대생의 심리사회적 성숙성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 28(1), 1-31.

서수균, 정영숙, 안정신, 박민아 (2012). 성숙한 사람의 특징. 대동철학연구회 논문집. 대동철학 제59집.

양병화 (2002).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이순목 (2001).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이현수 (1997).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임영진 (2012).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77-896.

여정희, 현미열, 이은주, 박은옥, 김정희, 송효정 (2005). 일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도, 우울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4(1), 73-81.

윤진, 김도환 (1995). 군복무 경험이 청년초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발달을 중심으로 한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185-197.

장세호 (2003). 동양의 이상적 인간관, 남명학연구, 제 16집, 381-423.

정옥경 (2006). 가정환경이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옥분 (2007).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정은이 (2003). 일상적 창의성과 심리 사회적 적응의 관계. 교육문제연구, 3(18), 103-120.

조애리, 김계현 (2011).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차이. 상담학 연구, 12(1), 283-300.

조공호 (2007b). 동아시아 집단주의와 유학사상: 그 관련성의 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21-53.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 1015-1038.

조애리, 김계현 (2011).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지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차이. 상담학 연구, 12(1), 283-300.

- 조윤경 (2003).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91-109.
- 탁진국 (2011). *심리검사-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규석 (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한덕웅 (1994). *퇴계심리학*.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황명숙 (2001).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사회적 문제 해결양식의 관계. *원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Vol.21.
- Brown, K. W., & Ryan, R. M. (2003). The benefits of being present: Mindfulness and its role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822-848.
- Berzonsky, M. D., & Kuk, L. S. (2005). Identity style, psychosocial maturity, and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9, 235-247.
- Bingham, C. R., . Shope, J. T, Zakrajsek, J., & Raghunathan, T. E. (2008). Problem driving behavior and psychosocial maturation in young adulthood.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40, 1758-1764.
- Côté, J. E. & Levine, C. G. (2002). *Identity formation, agency, and culture: A social psychological synthesi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in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91). *Manual for the Eysenck Personality Scales*. London: Hodder & Stoughton.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Greenberge, E., & Sorensen, A. B. (1974). Toward a concept of psychosocial matur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 329-358.
- Monahan, K. C., Steinberg, L., Cauffman, E., & Mulvey, E. P. (2009). Trajectories of antisocial behavior and psychosocial maturity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Development Psychology*, 45(6), 1654-1688.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981.
- Schwartz, S. J. (2001). The evolution of Eriksonian and neo-Eriksonian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A review and intergration.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1, 7-58.
- Sheldon, K. M., & Kasser, T. (2001). “Getting older, getting better”: Personal strivings and psychological maturity across the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37, 491-501.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378-1391.
- Waterman, A. S. (1972).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social maturity of entering college freshmen and their expetation about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1), 42-46.

1 차원고점수 : 2014. 09. 12.
수정원고점수 : 2014. 11. 27.
최종게재결정 : 2014. 11. 28.

Constructing and Validating a Scale of Psychosocial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Jung-Soon, Moon

Chonnam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A new scale for measuring psychosocial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was constructed and validated in this study. At the first stage, 195 items tapping various aspects of psychosocial maturity were extracted from the previous scales for measuring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from literature review. Based on evaluation of the whole items by 7 psychology students, 45 items were selected. At the second stage,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45 items with 241 college students of both sexes. Using a scree test, we extracted three factors of 16 items; they are 'personal maturity', 'interpersonal adaption', and 'social openness'. To check validity of scales, the correlations with related scales were examined. The correlations with satisfaction of life, aesthetic sensitivity, and subscal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and the correlations with neurotic propensity and with difficulty of emotional regulation were negative. The results supported that this scale is a reliable instrument to measure college students' psychosocial maturity. At the last stage of checking the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scal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another sample of 272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upported the preceding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sychosocial maturity, college students, factor analysis, personal maturity, interpersonal adaptation, social openness